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 평가
언어 영역 듣기 평가 대본

<1번> 이제 전화 통화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 안녕하세요? 깔끔전자 서비스 센터 기사 한친절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여: 네, 수고하십니다. 베란다에 있는 세탁기가 안 돌아가요. 얼었나 봐요.
남: 요즘 날씨가 추워서 세탁기가 얼었다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세탁기 앞에 서 계시나요?
여: 네.
남: 먼저 언 수도꼭지를 녹여야 되거든요.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수도꼭지를 감싸 주세요.
여: 얼마나요?
남: 십 분에 한 번씩 다섯 번 정도 반복해 주세요.
여: 잠깐만요, 메모 좀 할게요. (사이) 네, 말씀하세요.
남: 수도꼭지에 연결된 급수관 보이시죠?
여: 네.
남: 급수관이 세탁기에 연결된 부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감싸서 녹여 주시고요, 그런 다음 급수관을 빼서 뜨거운 물에 담가 주세요.
여: 그 다음에는요?
남: 이제는 세탁기 안의 얼음을 녹여야 합니다. 세탁조에 뜨거운 물을 십 리터 정도 부으세요.
여: 끓는 물로요?
남: 아니요. 펄펄 끓는 물 말고 좀 뜨겁다 싶은 물로 부으세요. 그걸 붓고 한 시간 정도 그대로 두세요. 그럼 녹을 겁니다.
여: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건가요?
남: 마지막으로요, 물 빠지는 배수관 아시죠?
여: 네.
남: 세탁기 옆에 있는 배수관 걸이에 배수관을 걸고 따뜻한 물을 그 안에 부어 넣으세요.
여: 아, 네.
남: 다른 불편한 사항은 없으십니까?
여: 네. 고맙습니다.
남: 깔끔전자 서비스 한친절이었습니다.

<2번> 이번에는 미술관에서 두 학생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학생: 와……, 미술관에 오니까 좋은 작품들을 많이 감상할 수 있어서 참 좋다.

남학생: 그렇지? 여기서 작품들을 직접 보니까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여: 맞아. 계속 서서 봤더니 힘드네. 어, 여기 웬 침대가 있지? 좀 앉았다 가자.

남: 어, 앉으면 안 돼. 그것도 예술 작품인가 봐.

여: 뭐라고? 이 침대가 무슨 예술 작품이야?

남: 여기 작품 이름이 쓰여 있잖아. (또박또박 읽는다) 「침대의 꿈」.

여: 이건 좀 심했다. 막 자다 일어난 내 침대랑 똑같은데. 너는 이게 정말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니?

남: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으니까 예술 작품이겠지.

여: 음, 너 아까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라고 했잖아. 우리 엄마는 내 침대 보구 지저분하다고 항상 혼내시는데, 이 침대도 만만치 않아. 그런데 무슨 예술 작품이니?

남: 그런가? 그래도 이게 예술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음……. 이거 아닐까? 이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우리에게 전해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

여: 작가가 이 침대로 말하려는 게 뭔데?

남: (곰곰이 생각하며) 음, 침대를 통해 자유로워지고 싶은 꿈을 말한 것은 아닐까?

여: 아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 주는 것이 예술 작품이라는 말도 이상해. 저기 '비상구'라고 쓰여진 표지판을 봐. 저 표지판을 만든 사람도 표지판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 주고 있지만 저게 예술 작품은 아니잖아.

<3번> 다음은 교장 선생님의 훈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요즘 우리 학생들을 보면 너무 약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당당히 맞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피해 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학교를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게 되면 때로는 힘든 일도 해야 하고, 어려운 상황도 헤쳐 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토스카니니의 이야기를 통해 시련의 극복을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관현악단의 첼로 연주자였던 토스카니니는 심한 근시로 악보를 잘 볼 수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첼로 연주를 포기하였겠지만 토스카니니는 달랐습니다. 다른 연주자들이 연주를 마치고 돌아갈 때 토스카니니는 홀로 남아 다음 연주에 사용할 악보를 모두 암기하였습니다. 토스카니니의 이런 끈질긴 노력은 그가 좋아하는 음악을 계속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지휘자가 지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각 악기의 연주자들은 자신이 연주할 부분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휘자를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연주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을 때, 연주자들은 토스카니니를 생각했습니다. 토스카니니가 바로 모든 악보를 완전히 암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토스카니니는 임시 지휘자가 되어 단상에 올라 완전히 외워 둔 악보 덕분에 지휘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토스카니니는 지휘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고, 최고의 지휘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시련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토스카니니처럼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물음과 답지를 함께 들려드립니다. 답지는 교장 선생님의 훈화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첫 번째 학생입니다.>
원하지 않는 목표라 하더라도 계속 노력한다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두 번째 학생입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면 목표를 쉽게 이룰 수 있을 거야.
<세 번째 학생입니다.>
기회가 찾아 올 때를 침착하게 기다리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네 번째 학생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노력한다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다섯 번째 학생입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세워야 해.

<4번> 이번에는 방송 프로그램의 대담 장면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고기를 꼭 먹어야 하나』의 저자이신 나채식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나채식: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선생님 책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채식을 하는 사람은 봤는데 선생님은 다른 이유 때문에 육식을 반대하시던데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나채식: 네, 저는 먹기 위해 동물들을 사육하고 죽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닭은 우리에게 고기를 제공해 주기 위해 좁은 양계장에서 다른 닭들만 보다가 죽습니다. 돼지나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생명체를 학대하고 목숨을 빼앗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회자: 네, 그렇군요. 그런데 고기를 먹는 것이 먹는 즐거움 때문만이 아니라 건강과 생존을 위해 먹는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채식: 사회자님도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건강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채식을 권장해야 합니다. 먹을 것이 고기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고기를 먹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건강과 생존을 위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회자: 동물을 학대하고 고통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과 동물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적인 능력도 그렇고 감정을 느끼는 정도도 다른데요.

나채식: 인간과 동물은 물론 다릅니다만 고통 받는 것, 죽는 것을 싫어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자신은 싫어하면서 동물에게는 괜찮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취자의 의견을 전화로 받아 보겠습니다.

<5번~6번> 이제 방송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앵　커 : 북한과 중국에 있는 고구려 유적이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취재 기자 나왔습니다. 강 기자! 북한과 중국에 있는 고구려 유적이 세계 문화 유산에 동시에 등재되었는데 그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강 기자(여): 네, 중국 장쑤성 쑤저우에서 제28차 유네스코 세계 유산 위원회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중국이 신청한 고구려 왕성, 왕릉, 귀족묘 등 고구려 유적 마흔세 곳과 북한이 신청한 고구려 고분 63기의 세계 문화 유산 등재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북한의 고구려 고분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 받게 됐습니다. 유네스코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존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이 신청한 유적이 함께 등재된 것은 고구려사 왜곡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됩니다. 한국대학교 소수림 교수의 말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림: 중국은 이걸 가지고 고구려 역사를 중국의 지방 역사로 편입하려는 시도를 한층 더 확고하게 하는 명분으로 이용할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고구려의 초기 도읍지였던 오녀산성과 국내성, 그리고 광개토대왕비와 장군총 등 굵직굵직한 유적이 포함된 반면, 북한은 고분군만 선정됐습니다. 이 점은 자칫하면 고구려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중국의 지방 역사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앵　커: 이러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고구려사는 우리의 역사인데요.

강 기자 : 네, 중국 언론들이 이번 세계 문화 유산 등재 사실을 보도하면서 고구려인은 중국 고대 소수 민족의 하나이며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정권일 뿐이라고 일제히 목청을 높였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소수림 : 앞으로 중국 및 북한에 있는 고구려 유적이 우리나라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려야 하고, 평양에 있는 대성산성, 안악궁, 평양성 등도 빠른 시일 안에 등재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등재된 후에는 보존이 부실할 경우 언제든지 '위험 유산' 리스트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강 기자 : 이제부터라도 남과 북의 전문가들이 적극 협력해 고구려 유적의 공동 발굴과 보존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앵　커: 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